

# “3·1혁명·촛불집회는 호남 의병정신에 기초”

김갑제 광복회 광주·전남지부장

### “한국 우대수출국 배제는 과거 식민정책 논리”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등 역사의식 제고 온 힘

“1905년 호남 토벌작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선조들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이 대한독립을 이뤄냈습니다. 그 정신이 촛불정신과 일본제품 불매운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립역사 제고에 애쓰고 있는 김갑제 광복회 광주전남지부장(67)은 일부 식민사관 학자들의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을 발전시켰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미국의 원자폭탄으로 한국이 독립을 선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단호히 반대의사를 전명했다.

김 지부장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은 구한말부터 1945년까지 50여년동안 의병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호남의 의병들은 1905년 ‘호남 대토벌 작전’으로 청년들이 말살되기 전까지 진행됐으며, 이후 만주의 독립군 뿌리도 호남의병정신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년 전 3·1혁명과 임시정부 수립, 90년 전 광주 학생독립운동, 39년 전 5·18민주화운동은 모두 호남

의병정신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운동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현재 엄마부대나 태극기부대 등 극우단체들이 일본 아베 총리에게 사죄하는 등의 목소리가 자국 내에서 나오는 것은 잘못된 역사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열강들이 아니면 대한민국은 독립을 할 수 없었다는 의식이 고정관념처럼 깊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망언을 쏟아낸다는 게 김 지부장의 주장이다.  
그는 또 지난 2일 일본의 우대수출국 중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은 ‘대한민국의 친일화’라는 과거 식민정책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보고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부장은 “호남의병정신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다”면서 “일본에 가지 않고,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19년은 3·1혁명과 임정 100주년, 광주 학생독립운동 90주년, 일제가 말하는 호남의병 학살 110주년 등 역사적 의미가 깊다”며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단합된 국민의 힘으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 야욕을 꺾을 수 있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복회 광주전남지부는 올해 사·도비 등 약 2억 5,000만원을 들여 150여명의 고등학생과 사·도민들이 함께 만주독립운동의 성지였던 동북3성과 카자흐스탄 등 이산민족사 사적지 등을 탐방하며 독립역사의식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김종찬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24~33	흑산도	24~29
담양	25~35	구례	25~34
화순	25~35	곡성	24~34
영광	25~34	완도	26~33
함평	25~35	강진	25~34
무안	25~33	장흥	25~34
영암	25~34	해남	25~34
진도	25~32	고흥	25~33
신안	26~33	보성	24~33

일출 05:51 일몰 19:23  
월출 18:50 월몰 04:19

목포	26~33	만주	01:46 13:35	여수	08:23 21:08
		간조	07:06 19:00	간조	02:35 14:26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 남구 공무원노조, 역사 바로알기 행사 “일본 정부 사죄·경제 도발 중단 때까지 계속”

광주 남구청 공무원노조가 역사문화 탐방을 통해 일본의 과거 행적을 되짚어 보는 우리 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를 잇따라 진행한다.  
남구청 공무원노조는 13일 “전국에서 ‘Boycott Japan’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경제 도발이 중단될 때까지 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청 공무원노조에서 추진하는 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는 역사문화 현장 탐방 형태로 진행된다.  
남구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9일 조합원 210명이 함께한 가운데 CGV 광주

금남로점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 만주 지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독립군의 활약상을 담은 영화 ‘봉오동 전투’를 단체 관람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는 오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항일 무장투쟁의 중심지였던 중국 연길과 용정, 백두산 일대 유적지를 답사하는 역사기행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안영석 남구청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일본은 징용 노동자 학대와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면서 인권을 능멸하고 있다. “노조는 국가의 주권 수호를 위해 일본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종찬 기자



**명소가 된 동백나무 파마 벽화** 천사대교 건너 신안군 암태도 기동삼거리 순석심 할머니·문병일 할아버지 집 담장에 수줍은 듯한 할머니와 환한 표정의 할아버지 벽화가 그려져 있다. 담 넘어 동백나무와 이 집에 살고있는 할머니·할아버지 초상화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동백나무 파마 벽화’가 그려진 이곳은 어느새 관광객들이 차를 멈추고 인증샷을 하는 명소가 됐다. /김태규 기자

## 광주·전남 12개 시·군 폭염경보

광주지방기상청은 13일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12개 시·군(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화순·광양·순천·장흥·영암·함평·영광)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폭염경보는 낮 최고 기온이 이틀 이상 35도 이상 지속 될 때 발령된다. 광주와 전남지역 폭염 특보는 제9호 태풍 레키마(LEKIMA)의 간접 영향으로 해제될 지 하루 만에 발효됐다.  
14일까지 낮 기온이 34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고, 밤에는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기상청은 또 대기 불안정으로 14일 오후에 5-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종찬 기자

## 집유 60대, 술집서 주먹질 철창형

폭력행위 등으로 항소심 재판중인 60대가 또 다시 술집에서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습폭행)로 김모씨(66)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로 만취해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에 화가 났다”고 범행 이유를 경찰에게 밝혔다.  
폭력행위 등 전과 36번에 달하는 김씨는 지난해 말 상해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김씨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나라 기자

## ‘무더위’ 세균성 질환 주의보

보건연구원, 설사질환 경고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세균성 병원체로 인한 설사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의를 요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질병관리본부, 지역내 협력 병·의원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설사질환 병원체 감시사업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설사증상을 보여 내원하거나 입원한 환자 1,521건 중 685건(45.0%)에서 원인병원체가

검출됐다.  
검사 결과 1~4월은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병원체의 검출률이 31~51% 높게 나타났다.  
4월에 세균성 병원체의 검출률이 6.5%였던 것이 더위가 시작될 5월에는 15.4%,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린 7월에는 23.6%로 증가해 하절기에 세균성질환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에 검출된 주요 원인병원체는 병원성대장균(47.7%), 살모넬라균(36.9%), 바실러스균(6.2%) 순으로 검출됐다. 최근 7월과 8월에 발생한 집단 설사환자도 병원성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이 원인균으로 규명돼 설사질환 감시사업의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기해영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수인성질환과장은 “세균성 설사질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음식물 익혀먹기, 물 끓여먹기 등 실천이 중요하다”며 “여름철 고온이 지속되면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학교 등 단체급식소와 일반 음식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음식물 관리와 식기류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 공기청정기 전문 대표기업 DK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미세먼지는 물론, 탈취까지 환경에 맞춰 진화한다

**mini air**

공기청정기와와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로!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플라즈마 더블케어로 한번 더!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형, 중형, 대형 공기청정기 제조 및 A/S | 문의 1544-1154 | www.e-dk.co.kr